

한국속의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

17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 (市 기념물 제51호)



1883년 설정된 일본조계와 1884년 마련된 청국조계의 경계로 중앙에 돌계단, 양쪽에 조경공간을 두었으며 계단 위쪽에는 중국 청도에서 기증한 공자상이 위치하고 있다. 인천의 근·현대사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좌측으로는 청국 우측으로는 일본의 조계지가 위치하였다. 경계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측의 다른 건축 양식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32)760-6470

18 삼국지 벽화거리



삼국지 소설 속의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등의 무용(武勇), 지략(智略)을 소개하는 150m 길이의 대형 벽화이다. 역사적 사실을 고사성어와 그림으로 즐기면서 과거 후한시대로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문의 : 032)760-6480

19 초한지 벽화거리



거리를 걸으며 중국 진나라 말부터 한나라 건국까지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초한지의 대표적인 사건과 인물에 대한 묘사등 명장면들이 110m 거리에 펼쳐져 있다.
문의 : 032)760-6480

20 차이나타운 거리



인천역에서 패루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 차이나타운 중심거리를 만날 수 있다.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은 상인들, 중국식 근대건축물, 붉은 색의 간판과 홍등을 볼 수 있으며, 대표음식인 짜장면과 공갈뽕, 월병, 중국차도 맛볼 수 있다.
문의 : 032)760-6480

21 짜장면 박물관 (선린동 공화춘, 등록문화재 제246호)



우리나라 짜장면의 발상지인 옛 '공화춘'식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상2층으로 2층으로 건립하였다. 짜장면의 역사와 문화 등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문의 : 032)773-9812

22 패루(牌樓)(중화가, 선린문, 인화문, 한중문)



웨이하이시가 기증한 차이나타운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마을입구나 대로를 가로질러 세운 탑 모양의 중국식 전통대문으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장식을 특징으로 하며, 귀신을 쫓고 상가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의 : 032)760-6480

23 한중문화관 및 화교역사관



한중문화관과 화교역사관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위치하고 있다. 한중문화관에서는 한중문화교류를 위한 다양한 공연과 중국 문물 전시실,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화교전시관인 화교역사관에 서는 1894년 차이나타운에 정착한 화교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문의 : 032)760-7860-6

관광안내소 관광서안내	인천역 관광안내소	032)777-1330
	중구청 관광진흥실	032)760-6480, 6490
	월드커뮤니티센터	032)773-7511

P 공영주차장	
차이나타운	• 위 치 : 차이나타운로 44번길 28-12 (인천역 맞은편 차이나타운 패루(중화가)를 지나 좌측) • 운영시간 : 연중(유료 09:00~21:00)
한중문화관	• 위 치 : 제물량로 238(한중문화관) • 운영시간 : 연중(유료 : 10:00~20:00)
중구청	• 위치 : 신포로 27번길 80(중구청) • 운영시간 : 연중(유료 월~금 08:00~19:00 / 토 일 10:00~20:00)
인천항 8부두 임시주차장	• 위치 : 인천항8부두 입구(월미도입구 삼거리) • 운영시간 : 무료 : 07:00~21:00

교통안내

대중교통

- 1호선 이용시 : 인천역 하차
- 수인선 이용시 : 인천역 또는 신포역하차
(신포역 하차시 중구청 기준 도보 10분)

버스

- 중구청 하차 : 15, 28, 307
- 인천역 하차 : 2, 10, 15, 23, 28, 45, 307
- 신포역 하차 : 9, 23, 24, 72
- 동인천역 하차 : 4, 9, 12, 15, 16, 23, 24, 28, 45, 72, 112, 307, 517, 521, 519

자가용

- 내비게이션 안내 :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인천중구청 한중문화관, 인천항 제8부두 입구(임시주차장)

인천 시티투어

• 운영시간 : 10:00~18:12(출발시간 기준) ※매주 월요일 휴무
인천역 기준 첫차 : 10:00 / 막차 : 16:45

• 배차시간 : 30분 간격

• 이용요금 : 중 · 고생·일반 5,000원
만 36개월 이상~초등학교생 3,0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65세 이상 3,000원

• 운행코스 :
하버파크호텔 → 연안 여객 터미널 → 인천 종합여시장 (카널워크) → G타워 (케넬워크) → 솔찬공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 송도테크노파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 송도컨벤시아 (NEATT) → 센트럴파크 (인천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 → 월미문화의거리 → 월미공원 → 개항장거리 (아트몰렛) → 신포 국제시장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천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 → 월미문화의거리

• 문 의 : 032-772-4000(강서관광) / www.travelicn.or.kr

인천광역시
http://www.icjg.go.kr

중구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Incheon Jung Gu

인천광역시
http://www.icjg.go.kr

중구

개항기 역사와 문화의 만남 **개항장**

1 인천개항박물관 (舊인천일본 제1은행지점, 市유형문화재 제7호)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금융기관인 일본 제1은행 부산지점의 인천출장소로 개설되었으며, 1888년 인천지점으로 승격되었다. 초기에는 해관세(海關稅)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금과 및 사금의 매입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점차 예금과 대출 등 은행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였다. 좌우대칭 절충주의 양식의 서구식 건축물로 웅장함이 인상적이다.
문의 : 032)760-7508

2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舊인천일본 제18은행지점, 市유형문화재 제50호)

일본 나가사키에 본점을 둔 일본 제18은행은 영국과의 면직물 중개무역으로 큰 이익을 거두자 1890년에 인천 지점을 개설하였다. 이후 조선식산은행 인천지점, 한국흥업은행 지점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근대건축 전시관으로 조성되어 여러 근대 건축물을 전시하고 있다. 목재트러스에 일식기와로 모임지붕을 하고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 032)760-7549

3 일본 제58은행 지점 (현 중구요식업협회 사무실, 市유형문화재 제19호)

1892년 인천전한국에서 주도되는 신화폐 교환을 목적으로 일본 제58은행 인천지점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야스다 은행, 조흥은행 인천지점, 대한적십자 경기도 지사 사옥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풍 벽돌조 건축물로 오르네리믹 창문, 벽체, 기둥은 원형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문의 : 032)760-6470, 772-8612

4 중구청 (舊인천부청사, 등록문화재 제249호)

일본은 1883년 일본조계지 내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2층 목조건물인 영사관 본 청사를 준공하였다. 1906년 2월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이사청 청사로,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에는 인천부청사로 사용되었다. 1964년 3층으로 증축되었으며, 광복 후에는 인천시청으로, 1985년부터 중구청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더니즘 양식 수평의 긴 띠창이 특징이다.
문의 : 032)760-6470

5 일본풍거리

인천 중구청 앞은 개항시대 일본인들이 거주하였던 일본 조계지로,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근대건축물과 최근에 꾸며진 근대식 건축물 및 조형물이 혼재되어 있다. 개항 초기 인천에 세워진 일본 주택들은 점포가 함께 딸린 목조 주택으로 마찌야(町家) 형식(목조 2층의 일본 전통 도시주택 유형)과 나가야(長屋)형식(나가야식의 1층 목조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문화주택(일제강점기에 서양주택의 공간구조와 외관을 따라 지어졌던 주택)이 인천 곳곳에 세워졌으며, 현재도 관동과 신흥동 일대에 여러 채가 남아있다.
문의 : 032)760-6470

6 제물포구락부 (市 유형문화재 제17호)



개항기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친목을 돕는 사교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01년 러시아인 사바틴(Sabatin)이 지금의 자유공원 기슭에 지상 2층의 벽돌조 건물을 지었다. 1914년 이후 일본제향군인회가 사용하면서 정방각(情紡閣)으로 불렸으며, 미군의 장교클럽, 시립박물관, 문화원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가 2007년부터 제물포구락부의 옛 모습을 재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의 : 032)765-0261

7 자유공원



1888년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으로 1897년 조성된 서울의 탑골공원보다 9년이 앞선다. 공원의 설계는 러시아 토목기사 사바틴(Sabatin)이 담당했으며, 각국 공동조계 내에 위치하여 각국공원이라 불렸다. 일제강점기에는 서공원, 광복 후에는 만국공원으로 불리다가 1957년 맥아더장군 동상건립 이후 현재까지 자유공원으로 불리고 있다.

문의 : 032)760-7580

8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우리나라와 미국은 1882년 최혜국대우, 거중조정(居中調整), 관세 등을 포함한 전문 14조의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구미 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 통상 조약이다.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은 그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향후 양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1982년 건립되었다.

문의 : 032)760-7580

9 홍예문 (市 유형문화재 제49호)



응봉산을 관통하여 인천항과 전동을 연결하는 아치형 돌문으로, 1905년 일본 공병대에 의해 착공되어 1908년 완공되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포화 상태였던 일본의 조계지를 만석동까지 확장할 수 있었으며, 홍예문 위로는 길이 생겨 내리교회에서 자유공원 어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가 형성되었다.

문의 : 032)760-6470

10 인천 내동교회 (내동 성공회성당, 市 유형문화재 제51호)



1890년 영국 해군 중군신부 코프(Charles John corfe) 주교와 랜디스(ElkBarr Landis) 박사가 선교 및 의료 활동을 위해 제물포에 도착, 1891년 성 미카엘 교회를 건립하였으나, 이후 6.25 전쟁으로 타격을 입어 누가병원 부지(현 내동교회)로 이전하였다. 6.25 전쟁 영국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고자 유가족들의 모금으로 건립한 전쟁기념 교회이기도 하다. 건물형태는 지붕의 목조 트라스를 제외하고 외벽 등을 화강암으로 쌓은 중서풍의 석조물이다.

문의 : 032)765-9004

11 내리교회 (웨슬리에배당)

1885년 북감리회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선교하러 들어와 1891년에 세운 감리교회로, 우리나라 최초의



별례		0 25m 50m
①	관광 안내소	화장실
②	지하철	역사 건축물
③	숙박시설	상권시설
④	식당	박물관 / 미술관
⑤	길거리음식	관광서
⑥	공원	교육시설
⑦	공영 주차장	경찰
⑧	극장 / 영화관	병원
⑨	성당 / 교회	우체국
⑩	의류 가게	소방서
---	밀집지역	기타



교회 중 하나로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도 불린다. 내리교회의 2대 목사 존스(G. H. Jones)는 1901년 현 내리교회 자리에 십자가형 벽돌 예배당(246m)을 세웠다. 50여년의 세월이 흐른 1958년 12월 연면적 1,066㎡ 규모의 2층 교회당이 완공되었으나, 1964년 2월 화재로 전소되어 새로 건립하였다. 이 건물은 내리교회 창립 100주년이 되던 해다시 헐리고 1985년 현재의 예배당이 완공되었다.

문의 : 032)760-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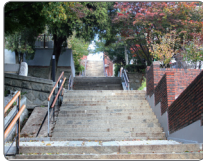
12 답동성당 (사적 제287호)



답동성당은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빌렘(Wilelm) 신부가 1889년 제물포성당을 창설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건물은 1937년 6월 건립되었다. 벽돌로 만든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1890년대에 건축된 한국 성당 중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하나이며,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1987년 9월 25일 사적 287호로 지정되었다.

문의 : 032)762-7613

13 각국 조계지계단



1884년 각국 공동조계가 형성되면서 일본조계와 각국조계 사이에 건립되었다. 홍예문이 개통(1908년)이 되기 전까지 관동 일대에서 전동으로 향하는 주 통행로 중 하나였으며, 현재까지도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다.

문의 : 032)760-6470

14 한국근대박물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광역시가 힘을 합쳐 개관한 전국 최초의 공공종합박물관으로 19세기 개항장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다.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성장을 주제로 한 상설전, 다양한 기획 전시,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근대문학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 032)455-7165

15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은 舊일본우선주식회사(등록문화재 제248호)를 비롯한 근대 개항기 및 1930~40년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개항기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문화적으로 재 활용하는 시민들의 뜻과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 탄생하였다.

문의 : 032)760-1000

16 대불호텔 및 생활사전시관



대불호텔 전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관이며, 생활사 전시관에서는 1960~70년대 인천 중구의 생활사를 만날 수 있다.

문의 : 032)766-2202